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5/7℃ 목포 6/7℃ 여수 7/10℃

단기 4342년 (음력 9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2호 1판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독립정신 기리며 건강걷기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1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동호인·교원·학생 등 시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상무시민공원-여성발전센터-김대중센터-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거쳐 상무시민공원으로 돌아오는 3km 구간을 걸으면서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독립정신을 기리고 시민 건강 증진의 시간도 가졌다. ▶관련기사 1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위 급습… 신종플루 초비상

위기단계 '심각' 격상·휴교 등 검토

광주 4세 남아 숨져 역학조사 착수

기온이 초겨울 날씨로 떨어지는 이번 주가 신종플루 확산의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온이 급강하하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광주에서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남자 아이가 한 대학병원에서 숨져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에 착수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나고, 감염환자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플루 확산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내 신종플루와 관련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Red)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처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섭씨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인 뒤 주중반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감기에 약한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미리 내복을 준비하는 등 옷을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급적 바깥생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기온이 떨어지는 올 연말까지가 신종플루 확산 방지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국가전염병 '심각' 단계로의 상향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동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인력동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에는 여행 자제령, 군 의료인력 투입, 신종플루 검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검사장비 공급확대 등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감염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까지 학원을 포함한 모든 중·고교에 휴교·휴업 조치를 취하거나 겨울방학을 앞당기고 잔여 수업일수를 내년 초 보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가 숨져 보건당국이 신종플루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이 숨졌으며, A군은 숨지기 3시간 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몸에 열이 나 부모와 함께 광주시 북구 한 소아과에 간 A군은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 등 신종플루 관련 치료를 받지 못했다. A군은 29일에도 이 병원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엎드려 숨을 쉬지 못한 채 발견돼 다른 종합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으나 결국 숨졌다. /윤현석기자 chadol@

농식품부, 또 전남 발목

J프로젝트 알박기 이어 고흥 우주클러스터 부지 확보 제동

전남도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고흥만 간척지에 100만 평 규모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간척지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목적 이외의 간척지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흥만 간척지 매립농지 500만 평 가운데 100만 평을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도록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농경지 조성을 위해 고흥만 일대에 3천969억 원을 투입, 930만평의 간척지를 조성해 준공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마무리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르면 국가사업에 사용되는 부지일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고흥우주항공센터 부지 3만 평과 활주로 부지 2만 평을 농림부가 지난 2002년 11월 고흥군에 양도·양수한 선례도 있는 만큼 간척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이곳에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려는 전남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알림

두바퀴로 만드는 가을추억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열립니다. 환경과 건강을 모두 살리는 자전거 타기를 널리 보급하고 참가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자전거 문화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늦가을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륜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회 홈페이지 bike.kjmedia.co.kr

-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장소 : 광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
- 종목 : 22㎞로드레이스/4㎞거북이 행진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스포박스
- 문의 : 062) 220-0541

※로드레이스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바이크 용품을, 거북이 행진 참가자 전원에게 자전거 안전모를 드립니다.
※거북이 행진 참가자 편의를 위해 당일 현장대여 자전거 1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접수 062) 220-0541〉

光州日報社

전남 한파주의보…서해안 첫 눈

2일 광주·전남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일 나주와 담양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은 대륙 고기압에 들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광주와 목포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예상되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까지 '기습추위'가 이어지다가 4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